

정지윤 평론

정(情)의 퇴적, 감정의 존재론

안현정 (미술평론가 · 예술철학박사 · 성균관대학교박물관 학예실장)

“정(情)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기억과 교감의 총이다. 나는 감정을 그리지 않는다. 감정이 생겨나는 과정을 손끝으로 체험한다. 예술은 단절된 사회 속에서 다시 서로를 잇는 감정의 다리이다.” - 정지윤 인터뷰 중에서

정은 시간의 감각이며 기억의 온도이고, 관계의 호흡이다. 작가에게 감정은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과정이다. 손끝으로 화면을 어루만지며 쌓아가는 반복의 행위 속에서 감정은 하나의 생명처럼 자라난다. 그 표면에 남은 흔적은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시간의 기록이자, 존재가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감정의 언어이다. 정지윤에게 감정은 인간이 세계를 만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시각보다 촉각이 먼저이고, 개념보다 온기가 앞선다. 감정은 일시적 정념이 아니라 관계와 시간이 얹혀 만들어내는 결의 언어일 것이다. 작가는 정을 한국적 정서의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세계와의 접촉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감의 회로로 확장한다. 작품들은 감정의 실험이자 사유의 장으로 기능한다. 손끝의 움직임이 시간의 궤적이 되고, 표면의 미세한 질감이 감정의 층으로 쌓이기 때문이다. 감정이 시각화된다는 것은 단순한 미학적 표현이 아니라, 감정이 어떻게 존재로 변하는가를 탐구하는 철학적 질문이다. 작가에게 예술은 감정을 해석하는 일이 아니라, 감정의 리듬 속에서 타자와 자신을 동시에 이해하려는 행위다. 예술이 감정의 다리가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정지윤의 작업은 인간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세심하게 기다릴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 아닐까. 감정을 쌓는 일은 그림의 미학이며, 관계의 윤리이고, 존재의 방식이다. 작가의 손끝은 시간을 쌓는 감정의 도구이고, 회화는 세계를 잇는 마음의 언어로 피어난다.

회화로 구축된 ‘정(情)’의 언어

정지윤의 회화는 감정을 묘사하는 일이 아니라, 감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는 일이다. 작가에게 정(情)은 한국적 정서에서 출발하지만, 향토적 감상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과 신체, 관계, 기억이 교차하는 감정의 구조적 층이며, 인간이 존재를 느끼는 가장 오래된 언어일 것이다. 메를로퐁티가 말한 “지각은 존재의 첫 번째 언어”라는 문장이 떠오른다. 손가락으로 물감을 밀어내며 화면과 맞닿는 작가의 제스처는 감정을 ‘보는 것’에서 ‘만지는 것’으로 전환한다. 감정은 시각의 결과가 아니라, 촉각의 잔향으로 태어나는 감각이 아닐까. 이러한 행위는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의 윤리”와도 닮아있다. 손끝의 접촉은 세계를 향한 응답이며, 타자를 향한 가장 오래된 인사이기 때문이다. 작가가 사용하는 모시, 아교, 민화 물감은 모두 손의 흔적과 시간이 스며든 재료다. 모시의 결, 아교의 향, 안료의 번짐은 감정이 형성되는 시간의 호흡을 닮았다. 감정은 생명처럼 순환하고 재료와 작가, 관객 사이를 흐른다. 결국 정지윤의 회화는 감정의 표면이 아니라 감정의 존재 구조를 드러낸다. 감정은 주관의 감상이 아니라, 존재들이 서로를 인식하며 맺는 관계의 흔적이다. 와쓰지 데쓰로의 ‘사이(間, *aidagara*)’ 개념이 이를 잘 설명한다. 정은 존재와 존재가 서로의 온도를 느끼는 틈새에서 태어나는 감정이다. 어쩌면 작가는 그 미세한 틈을 회화의 무대로 확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연의 존재론, 동서의 경계를 넘어

정지윤의 회화에는 언제나 실이 등장한다. 붉은 실은 관계와 인연, 운명을 상징하지만 작가에게 그것은 단선적인 상징이 아니다. 〈*Threads of Love*〉에서는 다양한 색조의 패널을 붉은 실로 연결하며 감정의 온도를 드러내고, 〈*Nevertheless*〉에서는 끊기고 다시 매듭지어지는 실의 흐름을 통해 관계의 유기성을 보여준다. 실은 얹히고 풀리고 다시 이어지며 인간이 서로를 지탱하는 구조를 닮는다. 이 관계의 논리는 동양의 상호의존적 세계관과 닮아 있다. 장회익의 온생명 사상처럼 인간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이루는 존재다. 작가의 손끝은 그 흐름을 직조하는 바늘일 것이다. 모시의 결, 아교의 층, 손끝의 닿음은 모두 생명과 감정이 얹힌 세계의 언어다. 디아스포라의 경험 또한 작가의 감정 구조를 형성했다. 서울, 런던, 로드아일랜드를 오가며 겪은 낯섬과 단절은 정이 단지 한국적 감정만이 아님을 깨닫게 했다. 감정은 특정한 장소의 산물이 아니라, 타자와의 ‘사이’에서 새로 태어나는 관계의 사건이 아닐까. 와쓰지의 ‘풍토’ 사상이 언급하듯 인간은 언제나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을 느낀다.

메를로퐁티의 ‘살(flesh)’ 개념을 빌리자면, 작가의 화면은 감정이 피어오르고 흠어지는 물질적 호흡의 장이다. 손끝의 흔적이 중첩될수록 감정의 리듬은 깊어진다. 색채는 그 리듬의 온도를 드러낸다. 오방색의 구조를 바탕으로 따뜻함과 냉기,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며 색은 감정의 파동이자 세계의 공명이 된다. 〈홍연〉과 〈Passing Encounters〉는 스쳐가는 관계 속에서도 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의 인사, 낮선 이의 눈빛, 짧은 교감의 순간 속에서 작가는 오래된 정서의 층을 발견한다. 감정은 지속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가 타자를 인식하는 순간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의 얼굴 앞에서 일어나는 각성”이 바로 그런 순간일 것이다. 정지윤의 회화는 감정의 미학이자 관계의 윤리학이다. 효율과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작가는 느낌과 촉각의 회화를 제안한다. 감정은 인간의 악함이 아니라, 서로를 묶는 윤리적 에너지다. 작가는 손끝의 언어로 다시 말한다. “정은 느리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새로운 가능성, 감정의 미래를 향해

정지윤의 회화는 동양의 정(情)과 서구의 감각철학이 만나는 자리에서 감정을 존재의 언어로 재정의한다. 화면에 남은 손끝의 흔적과 실의 매듭은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그러나 그 세계는 완결된 체계가 아니다. 오히려 시작의 문장에 가깝다. 청년 작가로서 그는 여전히 감정의 구조를 탐구하는 여정 위에 있다. 모시의 결처럼 섬세하고 붉은 실처럼 유연한 그의 회화는 앞으로 더 많은 관계의 언어로 확장될 것이다. 감정의 회복이 미적 실천이 될 수 있다면, 정지윤의 작업은 그 첫 장면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어쩌면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감정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온기(溫氣)를 느낄 수 있는가?” 그 물음이야말로 그의 예술이 품은 청춘의 가능성이다. 정지윤의 회화는 아직 미완의 문장처럼 남아 있지만, 바로 그 미완 속에서 감정의 미래가 자라고 있다.

Olivia Jeeyun Joung

The Stratification of Jeong(情): Ontology of Emotion

**by Ahn Hyunjung (Art Critic & Doctor of Aesthetics, Chief Curator,
Sungkyunkwan University Museum)**

“Jeong(情) is not a fleeting emotion but a layer of memories and affections accumulated over time. I do not paint emotions; I experience their birth through my fingertips. Art is a bridge of feeling that reconnects us in a divided society.” - Olivia Jeeyun Joung

For Joung, Jeong(情) embodies the rhythm of time, the warmth of memory, and the breath of relation. Emotion is not a fixed state but a living process. Each touch of her hand, each stroke pressed onto the canvas, records the pulse of existence. Through this tactile repetition, emotion grows like an organism; her paintings become a language through which being reaches out to being. Joung redefines emotion as humanity's oldest mode of perceiving the world—one that begins with touch before sight, with warmth before reason. Her practice moves beyond sentimentality or nostalgia. Jeong(情) becomes a structural field where time, body, and memory intersect. As Merleau-Ponty said, “Perception is the first language of existence,” and Joung's gesture—pushing pigment directly with her fingers—translates emotion from something seen to something felt. Emotion, then, is not the product of vision but a residue of contact. Levinas's idea that “ethics begins in the encounter with the Other” resonates here: each tactile movement is an ethical dialogue between artist, material, and world. The hanji fiber, starch glue, and traditional pigments she uses embody slow time and handmade intimacy. Their material breath recalls Chang Hoi-ik's “On-saengmyeong (Living Whole)”—a vision of life as an interdependent organism. In Joung's work, emotion circulates through body, material, and viewer like a living current. Her paintings thus reveal not the surface of emotion, but its ontological structure: emotion as relation, not possession.

The recurring red thread that binds her compositions signifies more than destiny or love; it visualizes the ecology of connection. In *Threads of Love* and *Nevertheless*, strands intertwine, break, and rejoin—mirroring how human relations persist through distance. The logic of her work follows the Eastern worldview of mutual interdependence: existence arises not in isolation but in the dynamic between. Watsuji Tetsurō's notion of *aidagara*—the “betweenness” of beings—illuminates this philosophy.

Emotion is born in that interval where warmth passes from one to another.

Diasporic experiences in Seoul, London, and Rhode Island deepen this awareness. Through cultural displacement, Joung recognized that Jeong(情) is not confined to Korea; it is a universal relational energy. The tactile surfaces of her paintings thus become a field of shared resonance-what Merleau-Ponty might call flesh, a space where self and world are interwoven. Color functions as emotional temperature. Drawing from the Korean five-tone spectrum, she allows warmth and coolness, brightness and dusk, to coalesce. Her hues pulse like breathing-echoes of life itself. In *Hong-Yeon (Crimson Connection)* and *Passing Encounters*, she captures ephemeral gestures-a stranger's glance, a market greeting, a brief moment of care-moments when Jeong(情) briefly flares into visibility before dissolving again. In an age dominated by speed and detachment, Joung reclaims the ethics of slowness. Her paintings remind us that tenderness is not weakness but a form of endurance. If art can heal, it is because it restores the rhythm of feeling that modern life has forgotten.

Olivia Jeeyun Joung's work stands not as a conclusion but as a beginning. As a young artist, she continues to explore how emotion transforms into existence and relation. The future of her art may lie in that unfinished sentence-where Jeong(情), the quiet pulse of humanity, keeps growing in the space between us.